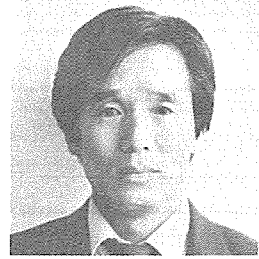


國內벤처캐피탈의 現住所

전국 1백여 벤처企業 연간 50억 매출회사도



李 龍 水
(東亞日報 科學部 次長)

위험은 다르지만 일단 성공하기만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벤처기업은 젊은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봄직한 매력있는 기업이다. 특히 한탕주의에 맞들인 사람들에게 이같은 합법적인 장치는 별로 없다. 그러나 벤처기업에는 참신한 기술, 씩박한 경영기법 등 남다른 아이디어가 전제조건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한 이들 벤처기업들은 현재 전국에 1백여개나 되며 이 가운데는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을 넘는 짝잘한 회사도 있다.

정부는 최근 이들 모험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산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들을 돕고 있어 국내의 벤처기업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기업들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태를 하고 있어 벤처기업육성이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책에 딱 들어맞는데다 이들 회사의 기술이 대부분 국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발벗고 이들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법률들은 담보없이 빌리기 힘든 일반은행용자대신 기술하나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셈이다.

모험자본 혹은 모험자본회사로 번역되는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젖줄. 벤처캐피탈의 특징은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높은 수익율을 보장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이다. 기업가정신이란 불확실성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이며 이러한 속성은 젊은이들에게 많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창업이 젊은층에 의해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이 투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창업, 확장, 기업인수 및 기업공개를 위한 준비투자등 4개의 형태.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 개발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곳에 투자하려는 새 경향은 연구개발의 성공이 불투명하여 위험이 큰 반면 성공하기만 하면 큰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 투자의 대상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신기술(새로운 공정 포함)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벤처캐피탈의 역사는 「스페인」의 여왕인 「이사벨라」가 「콜럼버스」에게 항해자금을 지원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후 향료와 노예무역에 이들 모험자금은 널리 이용됐다. 당시에 선장이나 선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신명을 바쳐 항해를 했다. 그러나 자본가는 자본만을 대고 항해가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는 대신에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한 자본을 잃기 때문에 이를 벤처캐피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벤처캐피탈은 1946년 「보스턴」에서 탄생한 ARDC(American Research & Development Corps)라고 할 수 있다. 이어 50년대 美國의 각 대학에서 신기술이 잇달아

개발되면서 이를 기업화하기 위한 벤처캐피탈들도 생겨났다.

국내에서의 벤처캐피탈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74년으로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중심으로한 한국기계연구소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그들의 개발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만든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가 그 효시다. 본격적인 벤처캐피탈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KTDC)가 정부출연금 75억2천여만원을 자본금으로 1981년에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이어 1982년에는 국내 7개의 단자회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국개발투자주식회사(KDIC)가 생겨났고, 1984년에는 한국산업은행이 전액출자한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KTFC)가 생겨나 국내 벤처캐피탈의 기틀이 마련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기술투자, 한국기업개발금융, 국민기술금융, 우신개발금융, 한신기술개발금융, 신영기술금융, 삼천리기술투자, 한국창업투자, 부산창업투자, 한국산업개발투자, 대신개발금융, 한국기술진흥(한국기술진흥은 기존의 벤처캐피탈로서 창업투자회사로도 등록) 등 12개 창업투자회사들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새로 생겨나 투자 대상을 찾고 있다.

이들 창업투자회사들은 전국 투자회사협의회를 만들어 효율적인 재원마련 및 투자대상을 찾고 있다. 이외에 일부 회사들이 새로 벤처캐피탈을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내에는 더 많은 벤처캐피탈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74년 한국기술진흥이 설립된 후 한국기술개발, 한국개발투자, 한국기술금융 등 4개의 벤처캐피탈회사에서 투·용자된 벤처캐피탈은 지난 연말 현재 1천1백62건에 3천2백31억여원.

올해 기존 4개 벤처캐피탈사의 투·용자 계획을 보면 한국기술진흥이 18억, 한국기술개발이 7백억, 한국개발투자가 67억, 한국기술금융이 3백여억원을 각각 투·용자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에 설립된 12개의 창업투자회사들도 지난해 4월 말까지 47건에 57억여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 올해 모두 1백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올해 쓸 벤처캐피탈은 1천2백35억원.

기존회사들의 투·용자현황을 보면 투자보다는 용자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위주의 투·용자를 하고 있어 벤처캐피탈의 본뜻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가장 활발한 벤처캐피탈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기술개발의 경우 지난 1981년 사업개시부터 1986년 말까지 투자 67건, 성공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용자 49건에 비해 용자는 7백57건이나 됐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캐피탈의 본질인 투자나 조건부용자보다 경영권의 위협이 없는 용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지원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같은 기간동안 한국기술개발이 대기업에 투·용자한 건수는 6백8건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백65건으로 투·용자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편중 투·용자현상은 차차 줄어들어 1986년에는 전체 투·용자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들의 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 한해동안 기존 4개회사의 당기 순이익은 한국기술개발이 14억9천5백만원, 한국기술금융이 5억5천만원, 한국개발투자가 1억2천4백만원이며, 한국기술진흥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그 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벤처캐피탈의 선두주자인 美國의 경우 최소한 투자5년후에야 손익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8~9년이 돼야 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4개사 가운데 투자회사를 처분한 회사는 한국기술진흥으로 그동안 투자 설립했던 13개 회사 가운데 남해요업, 한정화학 등 4개사를 매각했다. 그러나 이 매각조치는 자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회사경영의 압박에 의한 것이 그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밖에 장외시장에서 투자회사의 주식을 팔려고 하는 벤처기업으로는 한국기술개발이 투자한 에어로시스템과 한국기술진흥이 투자한 삼보컴퓨터, 한신기계 등 모두 3개사 뿐이다.

벤처캐피탈이 지원. 성공한 벤처기업은 (주)메디슨, 에어로시스템, 삼보컴퓨터등을 들 수 있다.

메디슨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개발한 초음파 진단기 제작이 사업의 핵심 처음 투자 5'천만원 조건부융자 2억원의 벤처캐피탈을 들여 현재는 월평균 4대씩의 초음파진단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억, 금년에는 30억원, 1988년에는 1백억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일으킨 柳信永군(20)은 세계 최초로 原音에 가까운 소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에어로시스템이란 스피커를 개발하여 밝은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 지난 1985년 한국기술개발로부터 2억4천만원의 회사설립 투자비를 받아 회사를 설립, 지난해 11월에 대당 2천8백달러의 최고급 스피커 33만달러 상당을 美國에 수출했으며, 금년에는 1천6백만달러 상당을 수출할 예정. 앞으로 30억달러 규모인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외 무게를 달 수 있는 「로드셀」이란 반도체를 개발하여 기업화에 성공한 (주)카스, 45분컬러현상기를 개발한 삼원사진기기, 자동전압조정기를 개발한 태일자동제어공업 등 벤처캐피탈로 성공한 기업은 많다.

벤처캐피탈은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한 기술을 전제로 투자되는 것이 원칙. 따라서 벤처캐피탈을 찾아 투자상담을 벌이는 사람들은 기업화 가능한 기술이 상담의 전제조건이 된다. 기술내용만 좋으면 쉽게 투자나 융자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내의 대부분의 벤처캐피탈들은 거의 비슷한 투·융자 심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기술개발의 투자상담 심사절차 및 사후관리를 보자.

먼저 벤처기업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신청사업이 회사의 지원목적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을 한다. 이러한 상담을 통과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심사담당자가 기술적인 내용등을 검토하여 승인할 경우 자금지원 및 상환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상임이사회에 보고,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된다.

벤처캐피탈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 신청인의 경영능력 ▲ 사업계획 ▲ 사업타당성의 검토 등이다.

우선 사업타당성의 검토를 위해서 기술검토,

시장성분석, 재무분석, 경영 및 관리능력검토가 이뤄진다. 또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추진일정 소요자금 및 경제적 효과등을 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경력, 금융거래상황, 경영능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으면 벤처캐피탈을 지원하게 된다.

일단 벤처캐피탈을 지원해 주면 그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해 동반자적 입장에서 금융서비스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문가를 동원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 시장개척을 도와 주며 관리능력이 미숙하면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체제를 확립시켜 주기도 한다.

이와함께 같은 벤처기업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기술개발의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듦으로써 벤처기업의 육성은 물론 자금을 지원한 벤처캐피탈의 이익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내 벤처캐피탈이 맞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의 조성문제.

벤처캐피탈의 특성이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험을 나눠가질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場外시장이 문을 열기는 했으나 등록된 회사는 10개로 이중 벤처캐피탈은 2개. 지금까지 단 한번의 거래가 이뤄졌다. 장외시장의 활성화는 투자가의 관심 못지않게 정책적인 지원이 선결조건.

최근 「웨스팅하우스」, 아시아개발은행, 록펠러 재단 등 외국자본가들이 벤처캐피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국내 벤처캐피탈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또 자금을 델만한 기업을 찾기 힘들다는 것도 국내 벤처캐피탈이 맞는 고민. 벤처캐피탈이 투자요건의 첫째가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새기술이 없다는 것.

그동안 기업화 된 기술들도 상당수가 외국 것을 모방, 국내 시장을 겨냥한 것들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유망기술의 연구 개발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금을 지원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